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최종 선정



▲지역단위 농촌관광(인제군청 제공)

봄에는 곰배령 일원을 중심으로 한 야생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과 소양호 숲 체험, 숲속 캠핑 등 물과 숲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가을에는 구상나무숲과 백담계곡을 연계한 단풍·농산물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겨울에는 자자나무숲을 활용한 설경 중심의 숲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계절 관광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2년간 총 700여 명 규모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 정연배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제만의 차별화된 농촌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농촌 체험마을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인제군의 자연과 일상을 담은 농촌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이 운영하는 농촌관광 여행상품은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에서 '인제로컬투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숲·미식 결합한 체류형 관광 '숲슬랭 가이드 인제' 본격화

인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년간 총 2억4천만 원을 투입한 사계절 체류형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1개소, 충북 1개소, 충남 2개소, 제주 1개소 등 전국 총 5개 사업지구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강원지부 공모에서는 인제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사)인제환성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참여해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사업단은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6년부터 2년간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 브랜드는 '숲슬랭 가이드 in 인제'로, 인제군의 사계절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 자원을 농촌마을과 연계하고, 미식 요소를 접목한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이다. 기존의 단발성 방문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재방문형 관광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삼 청년농업인 역량 키운다, 신제품·신기술 확산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 2월 11~1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서 1박 2일 공동 연수 토양소독 등 신기술 공유... 신제품·이중구조 하우스 보급 사업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월 11~1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충남 금산)에서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연수를 연다. 인삼 청년농업인과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인삼농협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인삼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제품·신기술의 빠른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회원 평균 연령은 약 36세다. 인삼 재배 농가 평균 연령이 약 66세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젊은 조직이다. 이들은 신제품·신기술 도입 확산을 이룰 핵심 주

체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 첫날에는 청년농업인이 발굴한 현장 과제 발표와 신기술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안시영 회장이 '열 차단제(차열제)를 활용한 고온 피해 경감 기술'을 주제로 현장 과제를 제안한다. (취경농은 '이웃짓기(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최신 토양소독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장욱 연구관은 '인삼 신제품과 노동력 절감형 재배시설', 유진 연구사는 '이중구조 하우스를 활용한 인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을 각각 소개한다. 현장 견학 시간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안 '인삼 뿌리썩음병 원균 밀도 진단실'을 방문해 이웃짓기(연작) 장해 경감 기반 기

술을 살펴본다. 이후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연구자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둘째 날은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총회'와 더불어 수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금산 인삼 약초 유통단지 방안이 계획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은 "최근 고령화와 이상기상 등으로 인삼 재배 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청년 후계 인력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청년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신제품·신기술의 현장 보급을 강화해 인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인삼-픽사베이

차세대 K-푸드 스타육성 위한 프로젝트 시작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업체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푸드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2026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업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시장 동향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권역별 전략품목군을 선정하고, 식품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너지를 유도하며, 민간 주도의 마케팅으로 히트상품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권역에 걸쳐 고르게 지원할 예정이다. aT 전기산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신규사업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유망 수출 품목을 새로이 발굴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집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외식업체, 푸드테크 기업
모집기간	2026.02.11. ~ 03.03.
모집분야	별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참가신청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문의처	E-mail : product@at.or.kr

▲홍보물

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위한 궤양 제거 당부

겨울철 궤양 제거·농작업 도구 소독 철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C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

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cm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지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NH농협금융, '2026년 AX·DX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NH농협타워에서 '2026년 NH농협금융 AX·DX 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금융은 AI·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AX(AI Transformation) 가속화 ▲ 슈퍼플랫폼 경쟁력 강화 ▲ 통합데이터 활용 개인화 마케팅 추진 ▲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핵심 과제를 집중 조망하고, 농협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했다. 농협금융 이찬우 회장은 "AI는

더 이상 보조적 수단이 아닌, 기업의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개별 조직의 업무 혁신을 그룹 차원의 경쟁력으로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제공

◆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표창·대통령 표창 수상 ◆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영국 하나님의 교회) ◆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금상 85회, 라이프타임)

세계와 함께 걷는 선한 길 바른 길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경대로'의 기본을 세워 묵묵히 정로(正路)만을 걸어온 복음의 한 길. 그 선하고 바른 길을 세계인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사랑의 길을 따르며 2026년도 변함없이 희망으로 밝혀가겠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과전 소재 열로침기념관을 찾은 제83차 해외성도방문단.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새 연의 복음을 성경의 원형대로 복귀한 전 세계 유일의 교회다. 해마다 각국 성도들이 본 교회의 발상지인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